

“인간은 차별없이 동등해야 해요”

“제가 여성가족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 성 평등이라는 주제에서 ‘평등’이라는 단어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라면 인종, 나이, 계급, 성차별 없이 모두 동등해야 한다는 개념을 배웠고 그게 성숙한 의식이잖아요.” (루피)

엠넷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준우승한 래퍼 루피(본명 이진용·31)는 지난 7월 국민참여로 만든 성평등 합창 음원 ‘해아 해’에 참여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이 곡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굴레와 불합리를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하며, 상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로를 찾는다는 말/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든 말/ 우리 이제 그만해/ 우리 함께 해아 해/ 난 너를 이해해”라는 가사가 ‘혐오 논쟁’에 빠진 합창계에 목격한 울림을 준다.

지난 3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난 루피와 ‘쇼미’ 최종 우승자 나플라(본명 최석배·26)는 미국로스앤젤레스(LA)에서 활동하다 한국에 들어온 이유, 그들이 생각하는 합창의 가치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루피는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 성인이 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LA 한인타운에서 나플라 등을 만나면서 합창 레이블 메이트레이를 만들었다. 유학은 그에게 평등의 가치를 곱씹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인지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매너가 미국 친구들에겐 배어



‘쇼미더머니’ 승자 나플라(왼쪽)와 루피.

루피&나플라 싱글음반 ‘워크 업 라이크 디스’

쇼미더머니 우승·준우승...한인타운서 첫 만남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협업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걸 노래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면 충분히 나와 정부가 함께 만들 접점이 있겠다고 생각했죠.” (루피)

미국 생활은 그를 인격적으로도 변모시켰다.

“LA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아요. 한국에선 항상 정해진 답을 맞히는 게 중요했죠. 옆집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가는지, 그 애처럼 되려면 어떤 학원에 다녀야 하는지 알아야 했죠. 일반화한 힘들지만 미국에선 각자 삶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농구를 해도 잘하

는 사람 앞에서 기죽기보다 ‘나도 할래 날 봐줘’ 식인 거죠. 이기주의가 아닌 개인주의, 인간으로서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루피)

나플라는 루피와의 첫 만남이 강렬했다고 회고했다. 2014년 LA 한인타운 한 음악축제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에 관심을 가졌다. 루피가 먼저 다가 “음악적 비전을 구현하려면 네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플라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렇게 2015년 1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LA에서 구축한 음악세계를 한국에서도 펼치고 싶었다고 한다.

언더그라운드에서 명성을 날린 두 사

람이지만 ‘쇼미더머니’ 우승까지 확신하지는 못했다.

나플라는 “‘톱12’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 생각했다. 여기서 날 떨어뜨린 건 않을 것 같았다”며 “그래도 탈락자를 발표할 때마다 긴장되더라. 루피 형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루피는 “‘쇼미’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느냐보다 랩을 잘하게 ‘보이는 것’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저도 타이프하고 기술적인 랩에 집착한 시기가 있었지만 한국에 넘어와서 음악을 대하는 철학이 바뀌었다. 그런 게 이 프로그램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저로서는 우승까지 기대하진 힘들었다”고 말했다.

루피 & 나플라는 4일 싱글음반 ‘워크 업 라이크 디스’(Woke up like this)를 발표해 듀오로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

래퍼 도끼·산이 논란 속 신곡 발표 지난 3일 ‘말조심’·‘응애응’ 공개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8)와 산이(본명 정산이·33)가 뜨거운 논란 속에 신곡을 냈다.

도끼는 3일 오후 6시 신곡 ‘말조심’에서 최근 불거진 빛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달 도끼 어머니가 외환위기 직후 동창에게서 1,000여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도끼는 처음부터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은 한 달 밥값 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판결문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끼를 세무조사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사과했다.

도끼는 ‘말조심’ 가사에서 ‘날 만나본 적도 없는 니가 내 인성을 논해/ 난 디스하고 바로 사과하는 놈들처럼 되기 싫어 그냥 지켰지 내 태도 HIP HOP’이라고 말했다.

또 ‘가심으로 또 왓가왓부 X소리 들 말구/ 달구니 뜨거워진 냄비 근성/ 천만 원 내 밥값 한 달 no cap/



도끼

산이

말조심 난 니들 머리 위에 있어/ 이 곡에 또 실망했다면 fuxx you 어차피 말 안 통해 진짜 팬들만 i love u’라고 말했다.

산이도 같은 날 신곡 ‘응애응’을 발표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달 이수억 남녀 폭행 사건을 계기로 쓴 ‘페미니스트’란 곡을 발표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페미니스트’에서 ‘넌 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남녀 월급 차이가 어찌고저찌고’, ‘야 그렇게 권력 원하면 왜 군대 안가나/ 왜 데이트할 땐 돈은 왜 내가 내’ 등 랩을 내뱉어 갑론을박을 불러왔다. ‘여성가족부’,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손태영, 자녀 동반 시상식 특혜 논란

“모든 상황에 대해 사과드린다”

배우 손태영이 ‘2018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동반 참석한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해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했다.

손태영은 지난 1일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멜론뮤직어워드의 시상자로 참여했는데 동반 참석한 아들, 조카가 연예인 석에 앉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아이돌 그룹 팬덤을 주축으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태영은 전날 자신의 SNS에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아들, 조카가 아이론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글을 삭

제했다. 이어 그의 소속사는 언론에 “아들이 엄마가 시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시상식 관계자가 안내해준 자리였고, 연예인 석인지 몰랐다”며 “손태영이 시상하기 전에 들어가 시상 장면만 보고 바로 빠져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이돌 팬들이 손태영의 아들과 조카가 공연을 계속 관람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지속했다. 이에 손태영 측은 3일 “모든 상황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해인 목소리 담은 ‘곰의 세상으로’ 시청률 3.8%

MBC 다큐멘터리 ‘곰’ 프롤로그...내년 1월 본 방송

오랜만에 만나는 명품 자연 다큐멘터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4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 방송한 MBC TV 5부작 다큐멘터리 ‘곰’ 프롤로그 ‘곰의 세상으로’ 시청률은 전국 3.8%, 수도권 4.1%를 기록했다.

‘아마존의 눈물’과 ‘남극의 눈물’ 등 MBC 간판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진만 PD 사단이 새롭게 선보인 ‘곰’은 프롤로그 방송부터 이미 뛰어난 영상미를 자랑했다. “2년 동안, 5,000여 시간 동안 목숨 걸고 촬영했다”고 힌집 말한

만큼 안방극장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야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었다.

프롤로그에서는 연어 사냥에 몰두하는 캄차카 불곰부터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북극곰, 울무에 걸려 다리를 절단했지만 금세 회복하고 새끼까지 낳은 ‘울무곰’, 수도산을 헤매는 ‘빠빠용곰’, 온종일 먹기만 하는 판다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도 생존을 위해 힘쓰는 곰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새끼를 살리겠다는 결기가 느껴지는 불곰의 전투장면과 굴러다니는지 걸어

다니는지 중간이 어려운 판다들의 귀여운 모습이 어우러져 긴장감과 유쾌함을 동시에 선물했다.

내레이터로 변신한 배우 정해인의 목소리도 신선했다. 그는 특유의 차분하고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청자들이 웅장하고 역동적인 화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왔다.

정해인은 김진만 PD를 비롯한 제작진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좀 더 무겁고 심각한 톤으로, 사랑스러운 판다를 비출 땐 가볍고 부드러운 톤으로 목소리를 바꿔가며 섬세한 내레이션을 선보였다.

“곰과 함께한 지난 2년은 도전의 연

속이었다”고 제작진이 밝힌 가운데 본격적인 방송에서 얼마나 더 생생한 영상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많은 방송사가 제작비가 많이 드는 다큐 제작에 소극적인 환경에서 “UHD(초고화질)라는 그림과 환경이라는 메시지가 결합하면 감동이 된다. 환경 메시지는 공유할수록 가치가 세진다”고 한 김진만 PD의 메시지가 어떻게 높아졌을지도 주목된다.

1부 ‘곰의 땅’은 내년 1월 28일, 2부 ‘왕의 몰락’은 2월 4일, 3부 ‘공존의 꿈’은 2월 11일, 에필로그 ‘곰에게서 배우다’는 2월 18일에 방송한다.

/연합뉴스

고 신성일 대표작 ‘휴일’ 블루레이 출시

한국영상자료원은 지난달 4일 타계한 영화배우 신성일의 대표작 ‘휴일’(이만희 감독·1968)과 이창동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 날’(1980)을 블루레이로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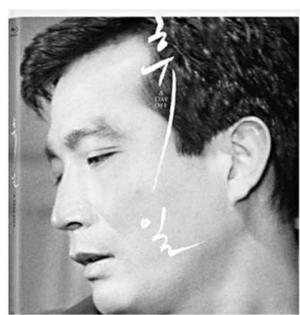
‘휴일’은 196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암울한 분위기와 불행한 연인의 이

야기를 세련된 화법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한국 모더니즘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제작 당시 검열 문제로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으나, 2005년 영상자료원이 원본 필름을 발견해 37년 만에 관객에게 소개했다. /연합뉴스

‘바람불어 좋은 날’은 1970년대 말 불어 닥친 강남 개발 열풍과 이로 인한 계급 격차의 문제를 대중적 화법으로 풀어낸 수작. ‘별들의 고향’(1974)으로 당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창호 감독의 작품으로, 안성기가 성인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한 영화이기도 하다.

블루레이는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살 수 있으며 가격은 개당 2만7,500원이다. /연합뉴스



이창동 감독의 ‘버닝’

이창동 ‘버닝’·홍상수 ‘밤의 해변에서’ 프랑스 영화전문지 ‘영화 톱10’ 선정

이창동 감독의 ‘버닝’과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프랑스 대표 영화전문지 ‘카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 톱 10’에 선정됐다.

한국배우 유대우가 주연을 맡은 러시아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의 신작 ‘레토’도 포함됐다. 이 잡지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올해의 영화 톱 10’에는 ‘버닝’, ‘밤의 해변에서 혼자’, ‘레토’ 이외에 ‘더 와일드 보이즈’(베르트랑 만디코), ‘쿠엥쿠엥 앤드 더 엑스트라 휴먼즈’(브루노 뒤몽) 등이 포함됐다. ‘팬텀 스테드’(폴 토마스 앤더슨), ‘폴 산체스 이즈 백’(파트리샤 마주이), ‘더 포스트’(스티븐 스피버그), ‘살인마 집의 짝’(라스 폰 트리에),

‘트레저 아일랜드’(기욤 브라크)도 이름을 올렸다. 카이에 뒤 시네마는 프랑스의 저명한 영화 평론가 앙드레 바쟁이 1947년 창간한 영화전문지다.

‘버닝’은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호평받았다. 본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칸영화제 기술 부문 최고상에 해당하는 별칸상(신점희 미술감독)과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받았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지난해 2월 열린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배우 김민희에게 한국 여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이다. ‘레토’는 1980년대 초반 러시아의 전설적인 록스타 빅토르 최의 젊은 시절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 5월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호평을 받았다. /연합뉴스